

여수시의회 특혜의혹 초강수 두나

임시회 개최...21일 '상포지구사업' 송곳 질의 예고
웅천개발특위 일부 의원 사퇴...시민협 "재구성하라"

여수시의회가 지난 13일 제190회 임시회를 연 가운데 돌산 상포지구와 웅천특혜 의혹 관련 주요 쟁점을 놓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관심을 받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여수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 질의, 여수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돌산 상포지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시정 질의와 함께 웅천특위 재구성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21일 예정된 시정 질의에서 송하진 의원(무소속)이 권오봉 시장을 상대로 '상포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송곳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송 의원은 상포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등 집중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들 외에 새로운 문제제기가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번 시정 질의는 민선 7기 권오봉 여수시장이 민선 6기에서 시작돼 수년

째 각종 특혜 의혹으로 지역 내 큰 논란을 불러 온 상포지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웅천지구 개발과 관련한 사안도 이번 회기 내 관심사다.

웅천 특혜 의혹을 밝히려는 우여곡절 끝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시의회지만, 일부 의원들의 사퇴로 출발부터 실패가 예고되고 있다.

여수시의회 웅천개발특위는 주종섭, 송하진, 정경철, 고희권, 문갑대, 민덕희, 정광지, 정현주, 박성미 의원 등 9명으로 구성했으나 최근 정현주의원과 박성미 의원이 사퇴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민협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특위 중복 위원을 배제하고 웅천특위 구성 찬성 의원을

중심으로 웅천특위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여수시민협은 이어 "처음의 도시계획과 현재의 개발 상황을 비교 분석해 정주인구, 교통망, 오페라시설 등 다양한 도시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나타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여수시의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정을 위해 특위구성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상임위 위원장이 중복해 특위 위원장까지 맡으면 상임위 활동에 제약이 있거나 특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형평성과 합리성을 고려해 웅천특위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은 다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특위의 재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광양시와 ㈜EG테크, 광양도심숲가꾸기위원회는 최근 도시공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 쾌적한 도시공원 만든다

시-도심숲가꾸기위원회-EG테크 업무협약

광양시가 최근 ㈜EG테크, 광양도심숲가꾸기위원회와 도시공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마동·마동저수지 생태공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과 소오섭 광양도심숲가꾸기 추진위원장, 고근수 주식회사 EG테크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EG테크는 환경정화활동, 공원 내 불법쓰레기 투기 등 금지행위 계도와 신고활동을 펼친다. 도시공원 관리 운영은 2022년 2월 12일까지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연장된다.

이번 업무 협약은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협력 12번째 사례이다.

시는 앞으로도 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지역 기업과 단체가 함께 가꾸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 시장은 "도시 숲 확대와 공한지 자투리땅을 이용한 소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겠다"며 "도시공원 관리 업무 협약에 많은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정경화 기자

여수산단 공장장·기관장 회의 개최

여수시가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2019년 여수산단 공장장 및 기관장 회의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여수산단 입주기업 공장장, 안전관리자, 유관기관장,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여수산단 안전결의문을 낭독하며 "안전한 여수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또 지난해 안

전관리 우수업체 4곳과 유공자 9명을 선정해 표창하는 순서도 가졌다.

표창을 받은 우수업체는 한화케미칼(주), TDI공장, GS칼텍스(주), 롯데첨단소재(주), 금호에코비화(주)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산단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여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순천 3·1운동 100주년 시민 불 조성

플래시몹·독립선언서 낭독 홍보

순천시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민 불 조성을 위해 플래시 몹 '독도는 우리 땅'과 '독립선언서' 낭독하기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시민이 주도하는 '태극기와 함께하는 자전거 퍼레이드' 및 '길거리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축제처럼 재미있는 '길거리 만세운동' 재연을 위해 시는 플래시 몹 '독도는 우리 땅!' 관련 자료를 어린이집을 비롯한 각 초·중·고등학교와 노인복지회관, 순천시체육회 등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독립선언서 전 시민 낭독을

위해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배포한 현판 '독립선언서'를 함께 배포했다.

플래시 몹, '독도는 우리 땅!' 시연을 위해 제7391부대 5세대 군인들과 순천시청 시민복지국 산하 직원 등 200여 명이 함께 연습 중이다.

시는 100주년 기념행사로 3·1절 기념식과 함께 독립선언문 전달 자전거 대행진, 시민과 함께하는 플래시 몹, 순천 선언문 발표, 3·1독립 길거리 만세운동 재현 등 100주년에 걸맞는 시민 주도형 행사를 준비 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액운아 물러가라”

내일 낙안읍성 큰잔치

순천시가 오는 19일 낙안읍성을 찾는 관광객과 낙안면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낙안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 액막이 굿을 시작으로 장승 및 솟대세우기, 마을별 민속경연대회, 기획공연, 당산제, 큰줄다리기, 햇불들고 성곽돌기, 달집태우기 순서로 진행된다. 당일 입장료는 무료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배우 전원주, 서우림, 한태일, 김정주, 가수 박건, 유화, 선예지 등 많은 유명인들이 출연해 특별 기획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체험거리도 다양하다. 대한민국 10대 서예가인 지당 김홍배 선생을 모시고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가운쓰기 체험과 놀이마당에서는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투호놀이 등 전통 민속



오는 19일 낙안읍성에서 '낙안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큰잔치'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모습. /순천시 제공

놀이도 즐길 수 있다.

강병일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은 "낙안 정월대보름 행사를 통해 가족과 주변 이웃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낙안읍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2019년도 낙안읍성 주

민자치사업의 하나로 낙안읍성 대표 주민자치 기구인 낙안읍성 보존회(대표 송상수)가 주최·주관해 실시된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광양 복지사각지대 해소 팔 걷었다

6월까지 위기가구 지원 기준 완화·인정범위 확대

광양시가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 사업' 예산 1억 원을 증액해 올해 6월까지 위기가구 인정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실직, 가솔, 행방불명, 휴·폐업, 중한 질병, 가정폭력, 재난과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 상반기 한시적 완화기준을 살펴보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와 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 등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계부서의 추천자를 우선 지원대상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월 346만 원), 재산 1억1,8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며, 전년도 대비 일반재산 기준을 3,300만 원 완화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월 119만 원), 주거지원(4인 기준 42만 원), 의료지원(300만 원 이

내)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어려운 가정 798가구에 4억6,6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통합사례 공무원과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공무원, 지난해 12월 16일에 위촉된 민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우리동네 빛누리단' 535명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긴급복지 지원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광양시 주민생활지원과(061-797-3124),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정경화 기자

클릭! 고향 소식



구례 군민공감대화 성료

구례군은 최근 '더 관측은 구례', '더 희망찬 구례'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8개 읍·면 순회 '군민공감대화'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군민공감대화는 김순호 군수를 비롯한 읍·면 기관단체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 군수가 직접 2019년 군정비전을 보고했다. 김 군수는 "군정에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하나 된 구례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곡성 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개강

곡성군은 최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민,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한국어강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프로그램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진출을 목표로 흡패션 과정을 전문기술 과정으로 심화 운영해 이주여성들의 실질적인 취창업 능력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이금주 센터장은 "참석자의 의견을 청취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보성 모기유충 구제 작업 실시

보성군은 최근 모기 등 위생해충으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월동모기 집중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모기 유충구제 작업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방제단은 공공기관, 마을회관 등의 집수정과 정화조 485개소, 유충 서식지를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활동으로 여름철 성충 개체수를 감소시켜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순천 성인문해 한글작문교실 수료식

순천시는 최근 문화건강센터 평생학습관에서 졸업생 23명과 수료생 4명,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인문해 한글작문교실' 졸업식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올해 91세로 최고령 학생인 조국동 안미순 어른신이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아 의미를 더했다.

시 관계자는 "한글교육과 더불어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